

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는 생활의 지혜

<http://lifetip.icross.co.kr>

식탁 얼룩, 식용유 묻혀 닦으면 'OK' | 감박 잇고 김이 펴질 나는 주전자를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 놓았는데 흰 얼룩이 생겼다면 마른걸레에 식용유를 묻혀 가볍게 문질러 보거나 소주나 담배 담근 물로 닦는다.

보온병 안 달걀껍질로 깨끗이 | 보온병의 내부 유리를 씻을 때는 달걀 껍질을 잘게 빻아 물과 함께 넣어 흔들어 주면 더러운 때는 물론 냄새까지도 제거 할 수 있다. 달걀 껍질에 붙어 있는 흰자위가 물때나 양금을 용해시키고 달걀 껍질이 수세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.

거울에 서린 김 비누로 깨끗이 | 거울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보통 걸레로 닦아지지 않는 얼룩이 생긴다. 이 때 걸레에 알코올이나 벤젠을 묻혀서 닦으면 깨끗해진다. 겨울에는 김이 잘 서리는데 수건에다 비누를 조금 칠해서 닦거나 아스트린젠트를 묻혀서 닦으면 한동안 김이 서리지 않는다.

스티커 자국 없애기 | 장판이나 장식장, 냉장고 등에 남아 있는 스티커 자국, 스티커를 떼 때 깨끗하게 다 떨어지지 않고 끈적거리는 부분이 남아서 지저분하게 보인다. 그러나 없애기가 매우 힘들고 잘못했다가 자국에 얼룩까지 남게 된다.

이 때 스프레이로 된 모기약이나 바퀴벌레약을 스티커 자국 위에 뿌린 후 걸레로 닦으면 말끔하게 사라진다.

자동차 유리, 성에 지우기 | 겨울이 되면 자동차 유리에 하얗게 성에가 끼게 된다. 바쁜 출근시간에 지우려면 시간도 지체되고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. 그러나 성에가 낀 차로 운전을 하는 것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한 일이다. 이럴 때 소금으로 유리를 닦으면 유리가 잘 얼어붙지 않는다.

겨울 원예, 천천히 흠뻑주기 | 겨울철 실내 원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주기. 물을 자주 주면 화초가 죽거나 혹은 너무 물을 주지 않으면 건조해 말라죽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. 화분 윗부분의 흙을 만져보아 마른 듯할 때 주도록 한다. 물은 단번에 주지 말고 천천히 흠뻑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.

식지 않고 따뜻한 찌개 끓이기 | 겨울철에는 찌개를 끓이면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먹을때마다 데우기가 번거롭다. 찌개를 끓일 때 국물에 녹말가루를 조금 넣어보자. 그러면 그릇에 퍼 놓아도 찌개가 잘 식지 않는다. 녹말 성분이 그릇 안에서 일어나는 대류작용을 막아 주기 때문이다. 그렇게 하면 먹다 말고 데워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.